

大東地誌(충청도 아산현/온양군/신창현)

- 金正浩 편찬 한국지리서(1861 착수 , 1864년 간행, 1866년까지 보완)

新昌縣

(卽今突城)

沿革 本百濟屈旨一云屈直 新羅景德王十六年改析梁爲湯井郡領縣

高麗太祖二十三年改新昌 顯宗九年屬天安

恭讓王三年 置漕城 萬戶兼監務

本朝 太祖元年省萬戶 太宗十三年改縣監 十四年合溫水縣號溫昌

十六年復析之官員 縣監 兼 洪州鎮管兵馬節制尉 一員

坊面 縣內 終五 大東 初五終十 小東 初五終八 大西 初五終十五

小西 初十終十五 北面 初五終十三 南面 初五終十五

山水 鶴城山西一里 琵琶山西五里 馬山東三里 道高山西南十六

里禮山界上峯曰國師頗峭峻 孤山東十里下有短岸長湖嶺路 大峙西南五里通禮山大路

○獐浦 西十五里出道高山北流入頓串浦上流 彌勒川東十二里溫陽之車輪灘下流詳牙

山中防浦一云丹場浦彌勒川下流犬浦一云蟹浦中防浦下流西北十八里右三處牙山界

城池鶴城周一千二百十三尺井二漕城在獐浦恭讓王時築收傍近州縣租稅漕至京師

倉庫 邑倉 海倉大西面終境

驛站 昌德驛東三里

橋梁 曲橋在彌勒川早橋潦缸內浦十餘邑通京大路

(邑內二七仙藏四九)土產柿鯽魚蟹秀魚黃石魚細尾魚

(拱北亭)典故 高麗高宗四十四年蒙兵來屯稷山新昌二縣 瑞山人鄭仁卿夜攻有功

辛禍時 廣州牧使崔雲海擊倭于新昌

신창현

즉 현재 突城이다.

【沿革】

본래 백제시대의 屈旨(일명 屈直), 신라 경덕왕 16년 祈梁으로 개명하여 湯井郡의 領縣이 된다. 고려 태조23년 新昌으로 개칭하다. 현종9년 天安府에 귀속시키다. 공양왕3년 漕城에 萬戶兼監務를 설치하다. 조선 태조원년 萬戶를 생략하다. 태종13년 감무를 현감으로 바꾸다. 태종14년 온수현과 합하여 溫昌으로 하다. 태종16년 다시 나누어 縣監 겸 洪州鎮 管割 兵馬節制尉 1인의 관원을 두다

【方面】

현내(縣內) 끝이 5리이다.

대동(大東) 처음이 5리, 끝이 10리이다.

소동(小東) 처음이 5리, 끝이 8리이다.

대서(大西) 처음이 5리, 끝이 15리이다.

소서(小西) 처음이 10리, 끝이 15리이다.

북면(北面) 처음이 5리, 끝이 13리이다.

남면(南面) 처음이 5리, 끝이 15리이다.

【山水】

鶴城山 서쪽 1리에 있다.

琵琶山 서쪽 5리에 있다.

馬山 동쪽 3리에 있다.

道高山 서남쪽 16리에 있다. 예산과의 경계 위에 있는 봉우리를 國師峯이라 하는데 자못 높고 험준하다.

孤山 동쪽으로 10리인데 아래로 짧은 절벽과 긴 호수가 있다.

嶺路(오르내리는 길) 大峙(큰고개)는 서남쪽 5리에 있고 禮山大路로 통한다

장포(獐浦)는 서쪽 15리에 있고 도고산 북에서 나와 頓串浦 上流에 유입한다.

미륵천(彌勒川)은 동쪽 12리에 있고 온양의 車輪灘 하류로서 아산현을 관통한다.

中方浦는 일명 丹陽浦로서 미륵천의 하류이다.

犬浦는 일명 蟹浦로서 중방포의 하류로서 서북으로 18리 오른쪽으로 아산과의 경계 3곳을 지난다.

城池는 학성 둘레 1,213척의 우물 2개이다.

당성(塘城)은 장포(獐浦)에 있는데, 공양왕 때 축조되어 이웃 주현의 조세(租稅)를 받아 배로 서울로 실어온다.

【창고】畚倉, 海倉(대서면 끝에 있다)

【驛站】昌德驛 : 동쪽 3리에 있다

【교량】곡교(曲橋) 미륵천(彌勒川)에 있는데 가물면 다리를 놓고, 물이 불면 배로 건너는데 내포 10여 읍에서 서울로 통하는 대로이다(읍내에서 27리, 선장에서 49리)

【토산】감[柿]·붕어[鯽魚]·게[蟹]·송어(秀魚)·황석어(黃石魚)·세미어(細尾魚).

[拱北亭] 옛 고려 고종44년 몽고 병이 직산. 신창 2현에 주둔하니 서산인 정인경이 밤에 공격하여 공을 세우다. 우왕 때에 광주목사 최운해가 신창에서 왜를 격퇴한 기록이 있다.